

산림청

포토뉴스



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이나 숲가꾸기 산물 등을 톱밥으로 만든 뒤 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로,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어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펠릿수요가 1억5천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산림청, 여주서 '목재펠릿 대전'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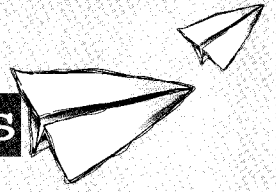


산림청은 9월 10일 경기도 여주목재유통센터에서 정광수 산청장과 자치단체 공무원, 산림조합지도원, 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'제1회 대한민국 목재펠릿 대전'을 개최했다.

'2009 대한민국 산림박람회' 개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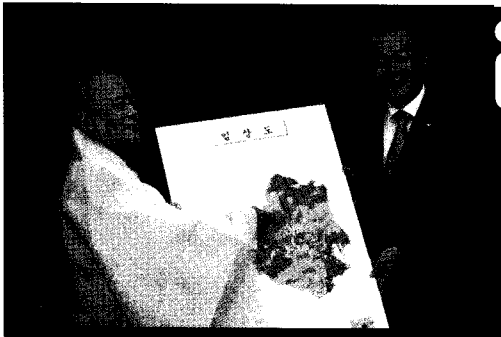


산림청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주관하는 '2009 대한민국 산림박람회'가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'녹색성장의 희망, 산림'이라는 주제로 9월 12일 개막됐다.



이번 박람회는 '숲의 나눔', '숲의 올림', '숲의 배움' 등 3개 테마존과 산림 관련 다양한 제품들이 172개 부스에 걸쳐 전시되며,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열린다.

산림청 · 조계종, 내년부터 사찰산림 종합관리사업 추진



내년부터 사찰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, 훼손된 산지복원, 오솔길 정비 등 종합적인 산림관리사업이 추진된다.

정광수 산림청장은 21일 오전 11시 대한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(지관스님)을 예방한 자리에서 '사찰산림 입야 현황도'와 '임상도'를 제작해 전달하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될 사찰산림 종합관리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당부했다.

산림청 '숲 사랑 체험관' 재개관



산림청은 9월 30일 정부대전종합청사 1동 1층에서 정광수 산림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'숲 사랑 체험관' 재개관식을 가졌다.

숲 사랑 체험관은 '저탄소 녹색성장과 산림의 역할'을 주제로 숲의 이해, 산림 재해, 산림의 역할, 숲속 쉼터 등 4개의 테마 구역으로 이뤄졌다.

